

**총평:** 이번 군무원 시험 7급은 문학과 어문규정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을 골고루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2번 14번 19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문제들에서 맞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고득점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80~84점대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입니다.

빠르게 해설을 작성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답 : ④

한글 맞춤법 44항을 보면,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 + 한글’인 경우는 붙여쓰지만 ‘한글 + 한글’인 경우에는 띄어 적는다. 따라서, 올바른 표기는 ‘십이억 오십육만 개’이다.

2. 정답 : ③

‘웃어른’이 표준어이다. 《표준어》 제12 항에서 ‘위-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는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고 ‘위-아래’의 대립이 없을 때는 ‘웃-’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답 : ③

상위 개념(유개념)에서 하위 개념(종개념)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 ‘구분’이고, 그 반대가 ‘분류’이다. 제시된 글은 ‘알타이어’라는 상위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고 있으므로 ‘구분’으로 볼 수 있다.

4. 정답 : ②

기본적인 ‘시 해석력’을 묻고 있다. 모든 시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시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인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없다’, ‘모른다’, ‘싫다’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며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옛 경험을 돌아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실적 묘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화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다시 힘차게 걷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5. 정답 : ④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글들이다.

한용운, 김택영, 위안스카이, 쑨원 등이 활동했던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이다. 또한 이토가 죄인이라는 표현, 나라 원수를 죽였다는 표현 등을 고려했을 때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정답 : ②

관동별곡의 한 부분이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 할샤’라는 표현은 ‘임금 곁은 떠나는 외로

## 2021 군무원 국어 7급 군무원 전문 대장부 신한종 해설

운 신하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삼각산 제일봉'은 임금이 있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한양을 떠나며 느끼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이 화자의 마음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 7. 정답 : ①

군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고전시가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사이인곡은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고, 도산십이곡은 자연을 학문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관동별곡은 자연에서의 흥취가 드러나는 작품이 맞지만 자연 속에서 살면서 쓴 것이 아니라 관동 관찰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을 유람하며 쓴 작품이다.

### 8. 정답 : ③

'너'를 뜻하는 시어와 '나'를 뜻하는 시어로 구분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아닌 밤 돌개바람'은 '나의 울음'을 뜻하고, 나머지 시어들은 '너'를 비유한 표현들이다.

### 9. 정답 : ④

군무원 시험에서는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자주 묻는다.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외래어 표기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① 트로트가 맞는 표기이다. 트롯이라고 적는다면 말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음성상징어가 된다.

② 강세가 있는 경우 [con-]은 '컨'이 아니라 '콘'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콘퍼런스가 맞는 표기이다.

③ 글라스가 맞는 표기이다.

④ 설루션이 맞는 표기이다.

### 10. 정답 : ④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라는 속담은 상대가 되지도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꼼짝도 아니 할 대상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뜻한다.

### 11. 정답 : ②

'완화하는 데에 효과를 보았다'라고 바꿀 수 있으므로 '데'는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띄어써야 한다.

### 12. 정답 ①

벗먹다는 '물건을 벨 때 칼이나 톱이 먹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게 잘못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3. 정답 : ①

미괄식으로 쓰여진 글이다. 박목월 시인의 시 세계를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쉽게 풀 수 있었다.

### 14. 정답 : ①

## 2021 군무원 국어 7급 군무원 전문 대장부 신한종 해설

센 정도를 뜻하는 ‘강도’는 強度이다.

### 15. 정답 : ②

4번 문항과 같이 기본적인 시 해석력을 묻고 있다.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 물방울’ 등은 폭포의 긍정적 속성과 연결되는 시어이며, ‘쉴 사이’는 나타, 안정과 같이 폭포가 지향하는 부정적 속성의 시어로 볼 수 있다.

### 16. 정답 : ③

後生可畏(후생가외)라는 사자성어는 젊은 후학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이 선배 보다 젊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넘쳐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기에 후진을 존중하라는 말로 쓰인다.

### 17. 정답 : ④

[공뀐녁]이 맞는 발음이다.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로 어문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이다.

### 18. 정답 : ③

Macheollyeong이 맞는 표기이다.

① 가평군 - Gapyeong-gun

② 갈매봉 - Galmaebong

④ 백령도 - Baengnyeongdo

### 19. 정답 : ②

‘주말하다’는 ‘먹을 물한 봇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붉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웠다고 해야 한다.

### 20. 정답 : ①

제시된 작품은 ‘고려가요’에 속하는 ‘동동’이다.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을 송축하고, 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 21. 정답 : ②

‘엄마의 말뚝’은 아들을 읽은 엄마의 아픔이 가슴 깊이 박혀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22. 정답 : ②

모럴리스트는 인간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탐구한 문필가를 이르는 말이다. 문맥상 ‘리얼리스트’가 오는 것이 맞다.

### 23. 정답 : ④

효과의 경우 [효 : 과/효 : 꽈]가 모두 표준발음이다. ‘흘대’의 경우 [흘때]가 표준발음이다.

### 24. 정답 : ③

(마)-(다)-(나)-(가)-(라)가 맞는 순서이다.

(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나이 외에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마) 앞으로는 배치될 수 없다. (나)의 경우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위계부터 측정하게 되는’ 이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나)의 순이 적합하다.

25. 정답 : ①

- ② 퍼레지더니가 맞는 표기이다.
- ④ 잘다랗다가 맞는 표기이다.

확실한 실력!

국어  
새로운 기준

국어 신한종

대장부 군무원  
국어 신한종입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육군 중위 전역  
현) 군무원 대장부 국어 강사  
현) 대치 이강학원 국어 강사  
현) 강남대성마이맥, 강남하이퍼 국어강사  
현) 육사 / 경찰대 국어 대치동 1타 강사  
현) 스카이에듀 국어 강사